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563850f12524df85810f9c2a384d3d3c887fb37dd05e8b8a83e18521085e62a0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**주요 뉴스:** 美 연준 파월 의장, 테이퍼링은 기존압장 유지, 금리인상은 거리두기
 - 연준 인사들, 연내 테이퍼링 지지. 종료 시점은 '22년 3~6월 제시
 - 미국 7월 근원 PCE 인플레이션(+3.6%) 30년래 최고치 기록
 - 중국 정부, IT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(미국 등 해외 IPO 금지)
 - **국제금융시장:** 완화적 통화정책 여건 장기간 유지 기대에 의한 위험선호(Risk-on)
 - **주가 상승[+0.9%], 달러화 약세[-0.4%], 금리 하락-4bp]**
 - **주가:** 미국 S&P500은 美 통화정책 정상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
유로 Stoxx600은 佛·伊 소비자신뢰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0.4% 상승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테이퍼링이 금리인상으로 바로 연결되지 못할 전망으로 약세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4%, 0.2% 상승
 - **금리:** 미국 국채금리(10년)는 현재의 저금리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로 하락
독일은 전일 ECB가 유로존 경기를 긍정적으로 진단한 여파로 하락 폭 제한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62.3원, -7.5원) 보합, 한국 CDS 보합

		8/27일	8/26일	전일대비			8/27일	8/2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509.4	4,470.0	0.88%	국채 금리 10y	미국	1.31%	1.35%	-4bp
	유럽	472.34	470.34	0.43%		독일	-0.42%	-0.41%	-1bp
	중국	3,522.2	3,501.7	0.59%	CDS 5y	한국	18bp	18bp	0bp
	일본	27,641	27,742	-0.36%		중국	35bp	35bp	0bp
	한국	3,133.9	3,128.5	0.17%	위험 지표	EMBI+	356bp	356bp	0bp
달러지수	92.68	93.06	-0.41%	VIX		16.39	18.84	-13.00%	
유로화	1.1795	1.1752	0.37%	WTI유		68.74	67.42	1.96%	
환율	엔화	109.84	110.09	0.23%	원자재	구리	431.85	424.75	1.67%
	위안화	6.4720	6.4818	0.15%		금	1,817.6	1,792.4	1.40%
	원화	1,169.2	1,170.5	0.1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(잭슨홀) 美 연준 파월 의장, 테이퍼링은 기존입장 유지, 금리인상은 거리두기

- 물가는 상당한 추가 진전^{substantial further progress} 조건을 충족, 고용도 뚜렷한^{clear} 진전이 있으므로 올해 중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
- 자산매입 축소 “시기”와 “속도”를 통해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할 의도는 없으며, 정책금리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2%를 적당히 초과하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
- 인플레이션은 중고차 가격이 안정되고 일부 가격 지표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곧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인사들, 연내 테이퍼링 지지. 종료 시점은 '22년 3~6월 제시

- 클라리다 부의장, 가을에도 강력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말 자산매입 축소를 지지한다고 언급. 델타 변이가 경제에 하방위험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전망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언급
- 애틀랜타 연은 총재, 8월에도 100만명 가량의 고용 증가가 이어질 경우 10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.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면 그 속도는 빠를수록 좋으면서 '22년 1분기말을 종료 시점으로 제시
-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, 현재 경제는 금리로 해결할 수 없는 공급 문제를 겪고 있어 자산매입은 효과가 약하다고 지적.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
-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, 고용·인플레이션 양 측면에서 “상당한 추가 진전”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 테이퍼링을 연내 시작하고 내년 중반 종료해야 한다고 언급

■ 미국 근원 PCE 인플레이션 30년래 최고

- 미국 7월 근원 PCE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+3.6%로 '91.5월 이후 최고치 기록. 4월 3%대 진입 이후 계속 우상향(4월 3.09% → 5월 3.47% → 6월 3.58% → 7월 3.62%)하고 있으나 전월대비_{mom}로는 6월 +0.5% → 7월 +0.3%로 소폭 둔화

■ 유로존 주요국 소비자신뢰지수, 중기적 고점 수준 유지

- 프랑스(7월 100 → 8월 99), 이탈리아(7월 116.6 → 8월 116.2) 소비자신뢰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치면서 전월의 중기 고점 수준을 유지

■ 스웨덴 중앙은행, 경기 회복세에 대해 낙관적 평가

- 세실리아 스킵슬리 부총재, 스웨덴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강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금년 여름을 지나는 동안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고 언급. 단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

■ 중국 공업이익 증가율 둔화세 지속

- 중국 국가통계국, 공업기업 산업이익 증가율이 '21년 3월 +92.3%로부터 빠르게 둔화되어 7월 +16.4%로 하락. 주로 생산자물가지수(PPI) 급등(7월 +9%)에 기인

■ 중국 정부, IT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

- WSJ, Reuters는 익명의 증권 감독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, 최근 중국 정부가 민감한 소비자 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해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IT 기업들의 해외 기업공개(IPO)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8/2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(전월비): +0.3%, 전월(+1.1%), 예상치(+0.4%)
- 미국 7월 개인소득(전월비): +1.1%, 전월(+0.2%), 예상치(+0.3%)
- 미국 7월 근원 PCE 디플레이터(전년비): +3.6%, 전월(+3.6%), 예상치(+3.6%)
- 일본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(전년비): -0.4%, 전월(-0.4%), 예상치(-0.3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8/3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,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, 소비자 신뢰지수, 일본 7월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 발표 예정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